

## J프로젝트 '땅문제' 해법 있다

정부, 부산시민공원·대전엑스포 부지매입 지원 전례

### "해남·영암일대 간척지 양여 적용해야"

정부가 전남 서남권 개발 예정지인 영암·해남 간척지 무상양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자치단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유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수천억대의 국비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성과를 좌우할 간척지 무상 양여에 정부, 특히 간척지 관할 부서인 농림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자자체 사업에 대규모 부지를 제공하거나 수천억대의 국비지원을 한 사례는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대전 엑스포 부지 이양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와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부산시 진구 16만평 규모의 미군부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폐쇄 후 이전 부지에 들어서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가격 3천억여원 가운데 정부가 2천억원을 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에 따른 소요 경비를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부지는 미군부대 폐쇄 이후 환경오염 치유를 거쳐

국방부가 인수하며, 각종 구조물 철거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 체결 후 부산시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 1993년 8월 7일부터 3개월동안 개최됐던 대전 세계박람회도 사업부지 양도 양수 과정에서 정부가 토지공사로부터 외상 매입한 부지 일부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대출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세계박람회 기념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잔여부지 19만 1천 평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귀속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 사례로 간주돼 서남권 개발을 위한 부지확보에 원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도룡지구 세

계박람회 부지 27만 3천여 평은 박람회 조직위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외상 매입후 박람회가 끝나고 부지 중 8만 2천 평을 대통령 결재를 받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시가 1천100억원 상당

의 지가로 환산돼 토지공사에 대출변제 됐다.

또 잔여부지 19만 1천 평은 대전 세계박람회 기념재단으로 귀속됐다가 재단 해산으로 권리와 의무를 대전시가 포괄승계함으로써 대전시 재산이 돼 역시 국가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J프로젝트를 위한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도 무상양도의 논리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弗=916.4원…9년만에 920원대 붕괴

## 900원도 위태 '수출 비상'

100엔=799.8원

어졌다. 전날 대비 하락폭은 지난 6월 30일 11.70원 이후 5개월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80원 떨어진 920.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자 919원선으로 떨어진 뒤 저가인식 매수세 유입으로 922.00원으로 올랐다.

<관련기사 10면>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7.90원 급락한 916.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간 14.40원 급락하며 지난 97년 10월22일 915.10원 이후 9년1개월만에 처음으로 910원대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악세와 매물 폭주 영향으로 급락했다고 전했다.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투자자금의 미국 이탈 우려

등으로 엔화에 대해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악세를 보였다.

920원 아래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용 달러 수요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역외세력과 수출업체의 매도세를 당해내지는 못했다. 외환당국이 장막판까지 시장개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도 손절매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당국이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은 것 같다"며 "900원대 유지도 위태롭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후 3시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799.80원을, 엔·달러 환율은 114.59엔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력충돌 피하려 PSI 부분참여"

盧대통령 대북 입장 밝혀… "PSI는 지지"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한 한국 입장과 관련 "북한과 한국이 바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주를 국방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래에 있어서의 핵확산 방지에 찬성하고 있다. 핵확산 방지도 중요하고 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PSI) 원칙을 존중하고 또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실제로 상당부분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하고 이웃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왜(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나, PSI 참여에 소극적이나는 질문을 국제사회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전부터 안보리 결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었고, 말하자면 안보리가 금지한 일체의 거래를 그 이전부터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었고, 그외에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북한에 매년 지원하고 있었던 비료와 쌀 등 미국 달러로 3억6천만달러에 해당되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재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전세계가 하고 있는 제재보다 금전으로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장성~담양 고속도로 뚫렸다

4차선 25.3km 오늘 개통…전주~순천 13분 단축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창~담양 고속도로'의 장성~담양 구간(일명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이 7일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 고창~담양건설사업소는 이날 오후 2시 유두석 장성군

수와 이정섭 담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담양 고속도로 장성~담양 구간 개통식'을 갖는다.

'장성~담양' 구간은 총 연장 25.3km에 5천14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됐으며, 왕복 4차선이다. 장성~담

양 구간의 개통으로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은 13.7km 단축됐고, 소요시간도 13분 가량 짧아졌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구간 통과 차량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연간 7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나머지 구간(고창~장성 구간 17.1km)은 내년 말께 개통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성~담양 구간을 왕복 4~6차선으로 기존(왕복 2차로)에 비해 넓고,

거리는 기존 구간보다 1km 가량 짧아졌다. /임주경기자 jhlim@

